

TOGETHER HA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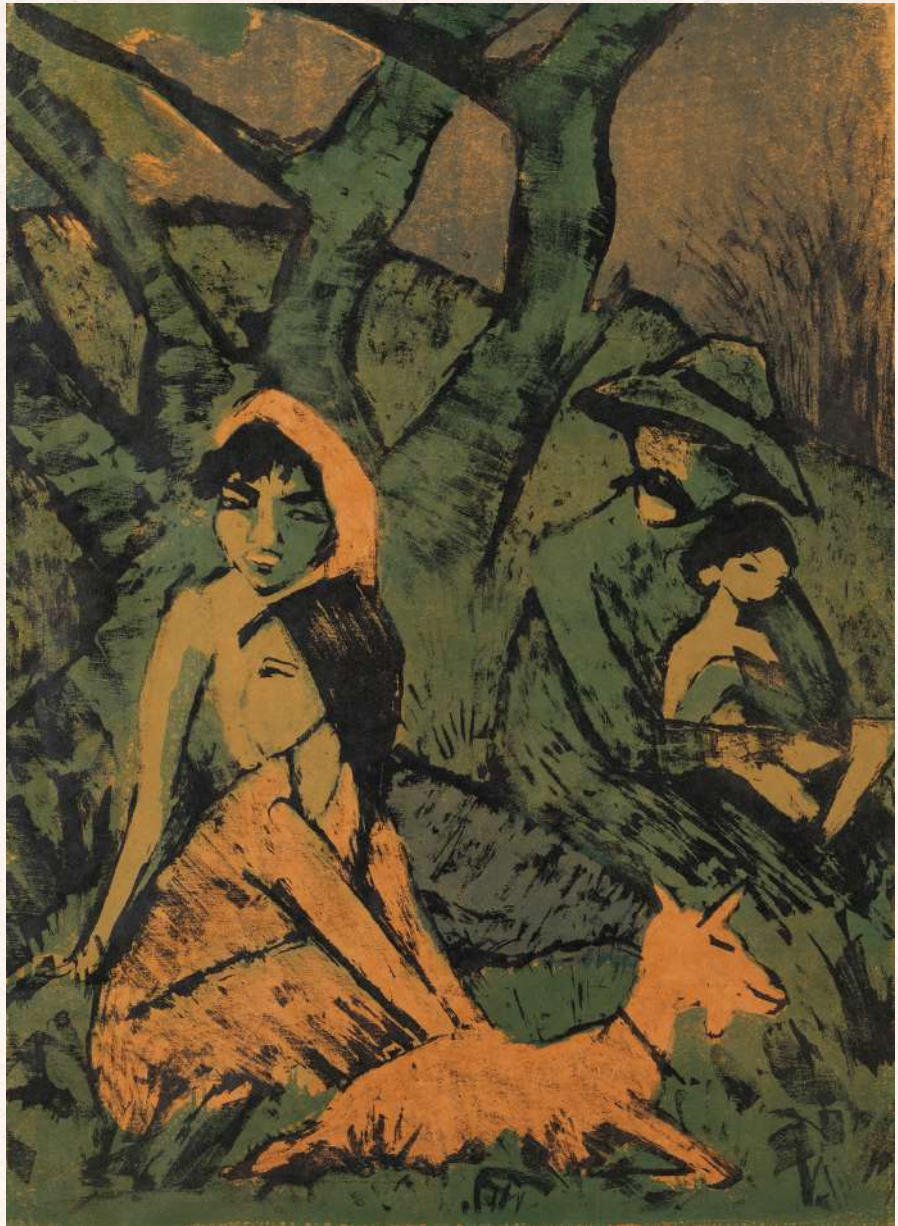
July

2026

Vol

242

표현주의 정서적 효과를 위하여 색채와 형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미술을 가리키는 미술사조



염소와 함께 쉬고 있는 집시 가족

Lagernde Zigeunerfamilie mit Ziege

오토 뮐러 Otto Mueller

오토 뮐러(1874~1930)는 독일 표현주의 그룹 브뤼케(Die Brücke)의 일원으로,
자연과 인간의 원초적인 조화를 주제로 작업한 화가입니다.

단순화된 형태와 절제된 색채, 부드러운 윤곽선을 통해 인물과 풍경을 그렸으며,
특히 자연 속의 누드 인물을 반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른 표현주의 화가들에 비해 격렬함은 덜하지만, 문명 이전의 순수함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추구한 점에서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표현주의 화가로 평가됩니다.

Contents

02	기획포커스 표현주의	16	전국 닭 요리 영월 박가네
04	트렌드 리포트 편슈머 마케팅	18	하림인 이야기 충청지점(신)
06	대리점 탐방 서귀포유통	20	칭찬 릴레이
08	초복 이겨내는 법 하림 삼계탕 소개	21	비즈니스 잉글리쉬
10	신제품 이야기	22	직장생활 꿀팁.zip
11	하림 뉴스 2026년 6월	23	눈으로 보는 하림

Date of Issue
2026년 7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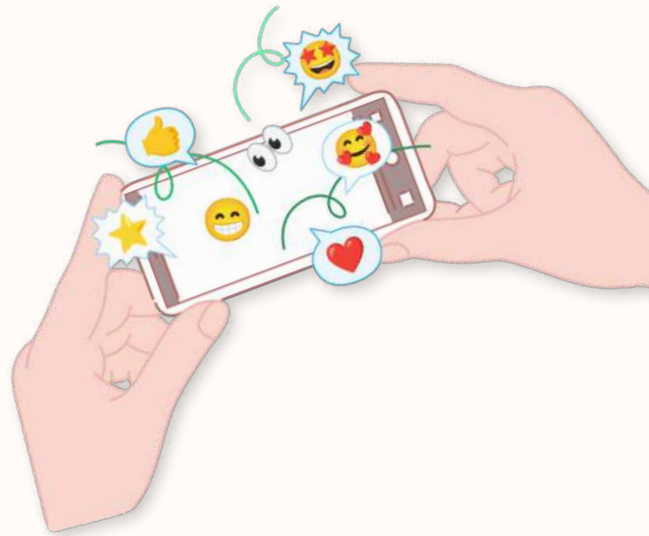


가성비 넘어 '가짬비'로, 자발적 팬덤을 만드는 '편슈머 마케팅'



‘재미’와 ‘경험’을 앞세운 소비가 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식품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기 어려워지면서, 가격 대비 재미를 의미하는 ‘가잼비’가 새로운 소비 기준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 중심에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편슈머(Funsumer)’가 있다. 이들은 독특하고 기발한 제품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 콘텐츠를 공유하며 소비 자체를 하나의 놀이로 확장한다. 이러한 자발적 확산 구조는 강력한 바이럴 효과를 만들며, 특히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공적인 편슈머 마케팅은 대중의 유머 코드를 정확히 관통한다. 사회 전반에 불던 레트로(복고) 열풍에 발맞춰 장수 밀가루 상표를 맥주와 결합한 대한제분의 ‘곰표 밀맥주’가 대표적이다. 또한 언어유희나 인터넷 밈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팔도는 ‘야민정음’(글자 모양을 비슷하게 바꿔 읽는 인터넷 유행어) 유행을 반영한 한정판 ‘팔도네넴틴’을 선보이며 완판을 기록했고, 해태아이스크림은 기존 ‘바밤바’의 배 맛 버전인 ‘배뽀뽀’를 출시해 B급 감성을 활용한 유머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무작정 유행만 좇다 무리수를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특히 화재성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을 위협한 도 넘은 마케팅은 안전 문제 논란을 키우며 결국 규제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 말표 구두약 초콜릿, 모나미 매직 음료, 딱풀 캔디 등 생활화학제품의 외형을 그대로 모방한 식품들이 그 예다. 어른들에게는 가벼운 장난일 수 있으나,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는 실제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삼키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편슈머 마케팅이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얕은 눈속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유쾌함이다. 따라서 식품기업은 ‘맛’과 ‘품질’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본질 위에 재미를 더해야 한다.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맛의 조합을 선보이거나 먹는 방식에 재미를 더하는 등, 소비자의 ‘미식 경험’ 자체를 신선하게 확장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결국 편슈머 마케팅의 성패는 재미라는 요소를 자사 제품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 타깃의 포인트를 잘못 파악한 억지스러운 변신이나, 브랜드 본연의 정체성을 해치는 기획은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맛과 품질이라는 탄탄한 기본기 위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한 유희’를 더하는 것, 그것이 치열한 식품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서귀포 유통

”거르더쳐 1일 1방문의 성실함”



푸른 바다를 건너 제주도 전역에 하림의 신선함과 맛을 전하는 든든한 개척자가 있다. 2002년 설립되어 제주도에 처음으로 하림 제품을 알리기 시작한 서귀포 유통 김철중(57) 대표이다.

Q1. '서귀포 유통'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귀포 유통은 2002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7명과 현장 곳곳에서 활약해 주시는 22명의 판촉 사원 등 총 29명의 직원이 제주도 내 50여 곳의 거래처를 관리하며 유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림 연매출은 약 4억 원 규모이며, 올해는 작년 대비 10%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Q2. 하림과는 언제,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서귀포 유통은 초창기 제주시 전체에 하림 제품을 납품하는 전속 대리점으로 시작해, 제주도 내에 '하림'을 최초로 알린 뜻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육가공, 신선육, 계란, 계열사 가금류 제품까지 취급 품목을 점차 확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닭고기 부문 1등인 '하림'의 타이틀과, 제주도 내 1등 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서귀포 유통'의 열정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Q3. 수많은 제품 중 서귀포 유통의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단연 '훈제통닭'입니다. 제주권은 지역 특성상 정말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이 유통되기 때문에 확고한 경쟁력이 필수입니다. 하림 훈제통닭은 타사 대비 맛과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대리점 초창기에 지인들과 주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안주로 나온 구운 통닭을 보고 모티브를 얻어 제주도에 처음으로 하림 훈제통닭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6개월간은 숱한 반품을 겪으며 고생도 많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지금은 하림과 저희 대리점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Q4. 치열한 제주 시장에서 거래처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업 비법이 있나요?

저의 좌우명인 '근면 성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저는 지금도 직원들과 함께 '거래처 1일 1회 방문'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경기 침체로 마트들의 미수금이 커지고, 거래처 10곳이 부도로 문을 닫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손해가 막심했지만, 저는 성실함을 무기로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고 관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꾸준함이 빛어낸 신뢰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5. '하림 대리점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뿌듯함을 느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현재 제주도 내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후원 단체를 통해 매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돌봐주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빵이나 과자보다 하림 '용가리 치킨'을 유독 좋아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하림 제품을 꾸준히 후원해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좋은 제품을 유통하고 있기에 이런 나눔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하림 대리점 대표로서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Q6. 끝으로 함께해 주는 가족과 직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대표이자 남편임에도 곁에서 묵묵히 꾸준하게 따라와 주고 응원해 주는 직원들과 가족들이 있기에 오늘도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 우리 모두 제주도 1등 대리점이 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림 파이팅! 서귀포 유통 파이팅!

새내기자 | 김봉균 대리



초복, 여름을 이겨내는 우리만의 지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어느새 초복이 찾아왔습니다.

초복은 삼복(三伏)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몸을 보충하기 위해
복날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복날 음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단연 삼계탕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닭고기를 함께 즐기는 삼계탕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지혜가 담긴 음식으로,

여름철 기력 보충을 위한 보양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직접 삼계탕을 끓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의 삼계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삼계탕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선한 닭고기. 좋은 원재료에서 시작된
삼계탕 한 그릇은 복날의 든든한 한 끼이자 건강한 여름을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올여름 첫 복날, 신선한 닭고기로 만든 하림 삼계탕과 함께
건강하고 든든한 여름을 준비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복날 유형?

복날 유형 테스트

- 복날 되면 삼계탕부터 찾는다
- 여름만 되면 입맛이 떨어진다
- 보양식은 챙기고 싶지만 요리는 귀찮다
- 뜨거운 음식 먹고 땀 흘리는 걸 좋아한다

2개 이상 체크했다면?

당신은 ‘복날 준비 완료형!’



하림 삼계탕

- Check Point 1) 24시간 이내 도제한 신선한 닭으로 만든 삼계탕**
24시간 이내 갓 잡은 닭고기를 사용하여 닭고기의 신선함과 본연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 Check Point 2) 급속냉동하여 갓 끓인 맛 그대로의 삼계탕**
-35℃ 이하 급속냉동으로 갓 끓인 맛과 신선한 육질을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 Check Point 3) 7가지 건강한 재료와 국내산 닭으로 만든 삼계탕**
수삼, 대추, 찹쌀 등 7가지 재료와 엄선한 하림의 닭으로 만들어 믿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 Check Point 4) 4시간 이상 끓인 육수로 깊고 진한 맛의 삼계탕**
정성스레 손질한 닭발을 4시간 이상 끓여낸 육수의 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하림 닭백숙

- Check Point 1) 24시간 이내 도제한 신선한 닭으로 만든 삼계탕**
24시간 이내 갓 잡은 닭고기를 사용하여 닭고기의 신선함과 본연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 Check Point 2) 급속냉동하여 갓 끓인 맛 그대로의 삼계탕**
-35℃ 이하 급속냉동으로 갓 끓인 맛과 신선한 육질을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 Check Point 3) 7가지 건강한 재료와 국내산 닭으로 만든 삼계탕**
수삼, 대추, 찹쌀 등 7가지 재료와 엄선한 하림의 닭으로 만들어 믿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 Check Point 4) 4시간 이상 끓인 육수로 깊고 진한 맛의 삼계탕**
알알이 들어간 마늘과 정성스레 손질한 닭발을 4시간 이상 끓여낸 육수의 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하림 누룽지삼계탕

- Check Point 1) 국내산 누룽지가 들어간 구수한 풍미의 삼계탕**
누룽지와 함께 끓여내어 구수한 풍미가 더욱 올라간 삼계탕입니다.
- Check Point 2) 급속냉동하여 갓 끓인 맛 그대로의 삼계탕**
-35℃ 이하 급속냉동으로 갓 끓인 맛과 신선한 육질을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 Check Point 3) 국내산 닭과 7가지 건강한 국내산 재료로 만든 삼계탕**
엄선한 하림의 닭과 수삼, 대추, 누룽지 등 7가지 재료로 만들어 믿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 Check Point 4) 4시간 이상 끓인 육수로 깊고 진한 맛의 삼계탕**
정성스레 손질한 닭발을 4시간 이상 끓여낸 육수의 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하림 누룽지 반마리 삼계탕

- Check Point 1) 국내산 누룽지가 들어간 구수한 풍미의 삼계탕**
황동판에 구워낸 전통방식 누룽지로 구수한 맛이 깊은 삼계탕입니다.
- Check Point 2) 급속냉동하여 갓 끓인 맛 그대로의 삼계탕**
-35℃ 이하 급속냉동으로 갓 끓인 맛과 신선한 육질을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 Check Point 3) 국내산 닭과 7가지 건강한 국내산 재료로 만든 삼계탕**
엄선한 하림의 닭과 수삼, 대추, 누룽지 등 7가지 재료로 만들어 믿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 Check Point 4) 부담없이 즐기는 보양식**
반마리 양으로 부담없이 가볍게 즐기 좋은 삼계탕입니다.

이달의 신제품

신제품 '쯔란 봉 양념구이' GS더프레시에서 판매

육즙 가득한 국내산 냉장 닭봉에 쯔란 시즈닝, 허니소스 더해 조화로운 '단짠' 풍미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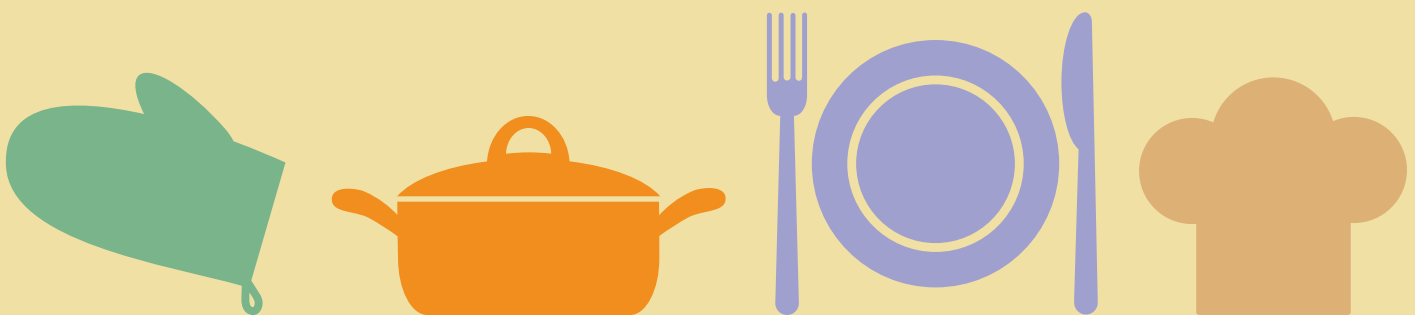
우리 회사가 신제품 '쯔란 봉 양념구이'를 GS더프레시에서 선보인다. 흔히 양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이국적인 향신료 '쯔란(큐민)'을 신선한 닭고기에 접목해 소비자 입맛 저격에 나섰다.

'쯔란 봉 양념구이'는 신선한 국내산 냉장 닭봉(윗날개)에 쯔란 시즈닝으로 고기의 풍미는 높이고 짭조름한 맛과 향긋한 감칠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별꿀로 만든 특제 허니소스로 조화로운 '단짠(달고 짜고)' 조합을 완성했으며, 냉장 닭고기 특유의 풍부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살렸다.

'쯔란 봉 양념구이'는 냉장 제품으로 165°C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약 14~16분만 익히면 육즙 가득한 '겉바속촉' 닭봉 구이를 즐길 수 있다. 늦은 밤 치킨 배달이 부담스러울 때에도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 혼술 안주나 야식 메뉴로 안성맞춤이다.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고추냉이와 마요네즈, 올리오당을 섞어 만든 와사비마요나 그릭요거트에 올리브 오일, 레몬즙, 다진 마늘 등을 넣어 만든 차지키 소스 등 취향에 맞는 디핑소스를 곁들여서 파티 음식으로 활용해도 손색없다.

신제품 '쯔란 봉 양념구이'는 6월 24일부터 전국 GS더프레시 매장 내 냉장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쿠팡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GS더프레시 김영민 MD는 "이번 신제품은 하림의 신선한 냉장 닭고기에 개성 있는 향신료 쯔란과 달콤한 허니소스를 더해 누구나 좋아할 '황금 밸런스'를 구현한 제품"이라며 "에어프라이어 15분 만에 간편하게 완성 가능하니 맥주 안주부터 피크닉 메뉴, 아이들을 위한 별미 간식 등 다양하게 즐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상반기 리뷰 워크숍 성료... “원팀(One Team)으로 하반기 도약”

전사 전략발표회 및 가공식품본부 라인 투어 병행 워크숍 개최... 전사적 시너지 창출 결의



우리 회사가 올 상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달 연이은 전략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달 17일 본사에서 개최된 ‘2026년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중장기 전략발표회’는 정호석 대표이사의 인사이드 공유를 시작으로 직할, 영업, 사육, 생산, 바이오 등 전 부문이 참여해 핵심 지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을 나누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올해 초 쉽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해준 임직원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림의 진짜 경쟁력인 만큼, HBH(Harim behavioral Habit)의 생활화를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러한 전사적 방향성에 발맞추어 각 사업본부 역시 현장 중심의 밀도 있는 자체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가공식품본부의 ‘2026년 상반기 워크숍’에서는 이용현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매출 및 손익 실적을 리뷰

하고 하반기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업 조직과 생산 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며 공정을 점검하는 ‘생산라인 투어’를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세심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현장의 고충을 깊이 체감했으며, 생산과 영업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원팀(One Team)’임을 재확인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워크숍을 이끈 이용현 가공식품본부장은 “상반기의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펼쳐 하반기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실행 의지를 다졌다.

이처럼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가 강조한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뼈대 위에 현장 부서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더해 탄탄한 하반기 가동 준비를 마쳤다. 우리 회사는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책임 있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새내기자 | 남다빈 대리

제14회 초등 장학금 도서 수여식 성료... 14년째 지역 인재 육성 앞장

익산 관내 초등학생 및 임직원 자녀 총 75명에게 도서 장학금 전달



우리 회사는 지난달 5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에서 ‘2026년, 하림과 함께하는 제14회 초등 장학금 도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도서 수여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마련된 하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역 사회의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시상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내 55개 초등학교로부터 추천을 접수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도서 구입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초등학생 55명을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사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초등학생 자녀 20명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

계 선발해, 총 7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도서를 수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 자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매년 도서 수여식을 통해 지역의 밝고 건강한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책 속에서 지혜를 얻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림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회사는 도서 장학금 지원 외에도 농가 상생을 위한 무상 물품 지원, 소외계층 나눔 행사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ESC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3

“시와 로봇의 결합, 하림의 내일을 그리다”킨텍스 식품박람회서 ‘미래 식품 혁신 기술’ 벤치마킹

지난달 9일 첨단 자동화 및 피지컬 AI 시스템 점검...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기반 마련



우리 회사 생산본부 미래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달 9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식품박람회를 참관하며 최신 산업 동향과 혁신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 제조 및 물류 분야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동화 설비와 로봇 기술,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등 첨단 기술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임직원들은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우리 공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깊이 있는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특히 생산 공정 자동화 설비와 물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피지컬

AI(Physical AI)’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제조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공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기술들은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품질 안정화 측면에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증명하며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닭고기 전문 식품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전반적인 생산 경쟁력과 제품의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중봉 가공공장장은 “이번 박람회 참관은 세계 식품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다양한 혁신 솔루션을 눈으로 확인한 뜻깊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현업 유관 부서들과 함께 자동화 및 AI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고,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을 당당히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전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우수 기술 가치와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이뤘내고,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프리미엄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새내기자 | 김현민 대리

4

사육본부, ‘2026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전폭 지원... 상생 경영 실천

지난달 5일 하림지주서 개최, 가금류 특화 커리큘럼 및 접수 간소화로 농가 호응 이끌어



우리 회사 사육본부가 계열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상생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5일 하림지주 사육 대회의실에서 계열 농가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우리 회사와 (사)한국육계협회가 주관한 법정 의무 교육이다.

우리 회사는 국내 육계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교육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육본부 소속의 핵심 임직원들을 전문 강사로 대거 투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은 양계 농가들의 오랜 고충을 완벽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의 축산 교육은 개별 농가가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교육 내용 또한 소나 돼지 등 대동물 위주로 편성되어 양계 농가들이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일괄 접수를 지원하여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온전히 ‘닭(가금류)’에 특화된 현장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조현성 사육사업본부장은 “회사의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강단에 올라 농가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가금류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농가의 경쟁력 강화가 곧 우리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육본부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보수교육을 연간 총 4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농가들이 멀리 이동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각 지역 거점별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진행하며, 동반 성장을 위한 따뜻한 상생 행보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새내기자 | 강승헌 사원

5

구글 루커 활용 'Self-BI' 코칭 세션 개최... 데이터 중심 경영 박차
 부문별 담당자 대시보드 발표 및 맞춤 피드백 진행, 데이터 실무 활용 역량 극대화



우리 회사는 지난달 18일 마동 지주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각 부문별 BI(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글 루커(Google Looker)를 활용한 'Self-BI' 코칭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은 지난 5월에 실시된 1차 교육의 연장선으로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이 현업에서 직접 구축한 대시보드 결과물을 공유하고 정밀 피드백을 받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날 담당자들은 1차 세션 이후 각 부문의 업무 특성에 맞춰 손수 제작한 대시보드를 발표하며

데이터 시각화 구성 방식과 분석 관점, 실무 활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션은 단순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넘어, 실무 담당자들이 현업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어진 전문 코치와의 일대일 피드백 시간 공간에서는 대시보드의 가독성과 데이터 활용성, 분석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타 부서의 우수 대시보드 구축 사례를 밀착 벤치마킹하며 다채로운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습득했고, 현업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전형 BI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다.

세션에 참여한 냉장마케팅팀 박유민 대리는 "이번 코칭을 통해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명쾌하게 정제하고 분석하는 실무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Self-BI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사내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영 및 영업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회사는 이번 코칭 세션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활용 능력)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부문 간 우수 사례 공유를 활성화하여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DX) 속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새내기자 | 남다빈 대리

6

사육사업부, 전 계약 농가 대상 '혹서기 사양관리 포스터' 배포
 유숙·쿨링 등 5대 핵심 수칙 담아... 폭염 대비 적극적인 밀착 지원 나서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가 다가오는 여름철 극심한 폭염에 대비해 농가들의 피해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사육사업부는 닭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핵심 지침을 담은 '혹서기 사양관리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고, 모든 육계, 삼계, 토종닭 계약 농가에 배포를 전격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다가올 폭염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육사업부 HBH팀이 현장의 데이터 및 해외 논문들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기획해 완성한 결과물

이다. 특히 농장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필수 관리 수칙을 상시 확인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가장 자주 드나드는 농장 출입구와 관리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포스터에는 여름철 사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리 포인트인 시설, 유숙, 밀도, 쿨링, 소동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가 담겼다. 농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숙과 쿨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칫 놓치기 쉬운 시설 점검, 터널 입구 개방 각도, 소동, 빛 유입 차단 등의 세밀한 내용까지 함께 첨부했다. 이를 통해 농장주들이 한눈에 혹서기 사양관리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실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이강현 사육사업부장은 "매년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폭염은 농가의 귀한 땀방울을 위협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사전 분석과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사양관리 포스터가 농가의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곳의 농가 피해도 없이 무사고 사육 환경을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닭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새내기자 | 강승헌 사원

7

‘2026 임직원 한마음 미륵산행’ 성료…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박차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임직원 화합의 장 마련



우리 회사는 지난달 19일 전북 익산시 미륵산 일원에서 정호석 대표이사 와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하림 임직원 한마음 미륵 산행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미륵산 숲길을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 졌으며 부서와 직급을 넘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산행은 평소 업무 현장에서는 나누기 어려웠던 다양한 이야기 를 공유하며 구성원 간 공감대를 넓히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임직원들은 미륵산의 자연경관을 함께 즐기며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동료들과 소통하며 조직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산행에 앞서 “오늘 미륵산 산행에 함께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며 서로 소 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동료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 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서로 배려 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산행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홍보팀 정진 사원은 “업무 공간을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평소 접점이 많지 않았던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앞으로도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임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확대하고 건강한 조직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 획이다.

새내기자 | 송다운 대리

8

익산새일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예방인식 개선 캠페인’ 개최

육아휴직 및 고용유지 상식 퀴즈 진행, 추러스 나눔으로 새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우리 회사는 지난달 9일 신공장 3층 견학주차장에서 익산여성새로일하 기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예방인식 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고, 새내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 마련됐다. 점심 휴식 시간을 활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 회사 임직원 20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따뜻한 상 생의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일하는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서비 스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임직원들이 유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 여성 고용 유지 등과 관련된 상식 퀴즈 맞히기 코너는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관련 제도를 올바르게 숙지하는 유익한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캠페인에 동참한 임직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구운 달콤한 추러 스와 시원한 음료 등 풍성한 간식이 선착순으로 제공되어 지친 일상에 즐 거운 활력을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지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일터 환경의 중요성을 새내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소 중한 기회가 되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 정을 돕고 직장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모든 임 직원이 고충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동반 성장 일터를 구축하 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새내기자 | 송다운 대리

9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그린 피크닉' ESG 파트너 참여... 건강한 먹거리 지원으로 축제 풍성함 더해 개장 4주년 및 환경의 날 기념 생태 축제에 단백질바 3,000개 후원



우리 회사가 지난달 6일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일원에서 열린 생태문화 축제 '그린 피크닉 (Green Picnic)'에 ESG 파트너로 참여해 탐방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이 주최한 것으로, 생태단지 개장 4주년 및 환경의 날을 기념해 마련되었다. "우리의 즐거움이 지구의 자연 회복으로"라는 슬

로건 아래, 단순한 방문을 넘어 모든 탐방객이 생태계 회복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장으로 꾸며졌다.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ESG 협력 파트너로 동참한 우리 회사는 축제의 풍성함을 더하고자 탐방객들에게 '오늘단백밀크초코스트로베리바' 1,500개와 '오늘단백밀크초코치즈케이크바' 1,500개 등 총 3,000개의 단백질바를 후원했다.

또한, 생태단지 내에 마련된 '생태단지 이벤트존' 부스에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톨렛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림 마스코트인 피오와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후원 물품을 전달해, 축제를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종 지속경영팀장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의 네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하림이 ESG 파트너로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하림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10

피오봉사단 13기와 '헌 옷 리사이클 캠페인' 진행

피오봉사단 가족·하림 전 직원 참여해 총 85박스 분량의 의류 수거, 국내외 소외계층에 전달



우리 회사는 '피오봉사단' 13기와 함께 6월 '세계 환경의 달'을 기념해 헌 옷 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했다.

피오봉사단은 하림 임직원 및 소비자 가족들이 모여 탄소중립·친환경 가치를 실천하는 환경 봉사단으로, 올해 13기를 맞이했다. 이번 달에는 세계 환경의 달을 기념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헌 옷 리사이클 캠페인과 환경 영화 감상으로 구성된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며 친환경 실천을 이어갔다.

헌 옷 리사이클 캠페인은 하림과 의류 나눔 비영리단체 '옷캔 (OTCAN)'이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활동으로, 피오봉사단 13기 가족뿐만 아니라 하림 전 임직원이 참여해 자원 선순환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봉사단 가족들은 아이들의 성장으로 작아지거나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 옷 등을 전달했으며 총 85박스 분량의 의류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물품은 해외 난민·재난국가·쪽방촌 주민 등 국내외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오봉사단 13기 가족들은 세계 3대 환경 영화제이자 아시아 최대 환경 영화제인 '2026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작품상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피오 그린 시네마' 미션에 참여했다. 기후 변화, 동물, 해양, 자원순환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다양한 환경 이슈를 영화로 마주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부모에게는 가정에서 환경 문제를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아이들에게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자원 절약, 재활용 등 생활 속 친환경 실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하림 마케팅팀 김완제 대리는 "올해도 헌 옷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피오봉사단 가족과 하림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자원 선순환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남은 13기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월군 '박가네'

영월의 산나물로 만든 정갈한 건강 밥상

영월의 산채정식 맛집 '박가네'는 건강한 한식 밥상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곳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단종의 수리상을 재현한 곳으로, 여행객과 가족 단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인의 밥상',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등 다양한 방송에 소개되며 영월 대표 맛집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정보>

위치: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149

전화번호: 033-375-6900

영업시간: 10:30~19:00(18:30 라스트 오더)

15:00~17:00(브레이크타임)

주차: 무료 공영주차장

서비스,편의시설: 단체석, 혼밥석, 포장가능

<주요 메뉴>

- 수리상(어수리나물밥, 11 첩반상,막장찌개,소불고기)
- 단종의 밥상(어수리나물밥, 11 첩반상,막장찌개,더덕구이)
- 단종의 수리상(어수리나물밥, 11 첩반상,막장찌개,더덕구이,소불고기)
- 능이 한방 닭/오리 백숙
- 해천 한방 닭/오리 백숙 (능이버섯,문어,전복,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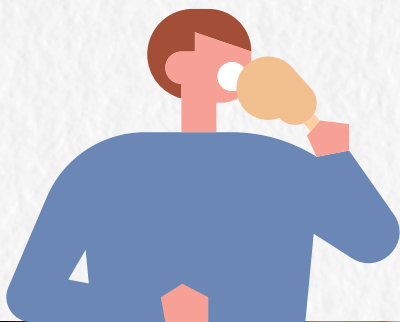
깊고 진한 보양식 ‘능이 한방 닭백숙’

정성스레 푹 고아낸 ‘능이 한방 닭백숙’은 능이버섯과 한약재를 아낌없이 넣어 깊고 깔끔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 특히 우리 회사의 신선한 닭을 사용하여 한층 더 부드럽고 쫄깃한 육질을 엿볼 수 있다. 진한 육수와 어우러져 한 입만으로도 몸이 든든해지는 훌륭한 보양식이다.

왕의 밥상을 재현한 ‘단종의 수리상’

단종에게 진상했던 귀한 산나물로 차려낸 밥상도 이곳의 주역이다. 향긋한 뚝배기 더덕구이와 산뜻한 어수리 솔밥, 고기 반찬을 더한 푸짐한 11첩 반상, 구수한 시래기 막장찌개가 상을 꽉 채운다. 마치 왕이 된 듯 다채로운 맛을 즐긴 후 고소하게 즐기는 솔밥 누룽지 또한 별미다.

갓 지은 솔밥이 나오는 20분 동안 매장 내 영월 농특산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영월의 산이 내어준 다채로운 밥상. 영월의 향기를 오롯이 담아낸 ‘박가네’에서 건강하고 정겨운 미식 여행을 완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3줄로 정리한 영월 ‘박가네’

- 영화 속 단종의 수리상을 재현한 영월 어수리나물 산채 정성 맛집
- 한방 닭백숙부터 푸짐한 11첩 반상까지 다채롭고 매력적인 건강 밥상
- 혼밥족부터 가족 여행객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영월 대표 맛집



하림의 신선한 가치를 고객의 식탁까지 책임지는
충청지점을 만나다

충청지점(신)을 소개합니다



1. 충청지점을 한 줄로 말하면?

"신선함과 발 빠른 현장 대응으로 승부하는 충청지점"

하림의 우수한 신선 제품을 보다 많이, 보다 가치 있게 판매하기 위해 고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업 전문가들입니다.

2. MBTI로 알아보는 충청지점

공감과 소통으로 팀을 이끄는 리더
박진영 차장(지점장)

INFP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으로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통해 지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리더입니다.

출근하면 E가 되는 소통형 영업맨
전상우 과장

ISTP



차분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친화력의 소유자입니다. 거래처는 물론 사내 유관부서와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아이디어 बैं크
박지호 대리

ENTP



틀에 박힌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도전가입니다.

현장을 사랑하는 행동파 영업맨
김태석 사원

ENFP



고객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최고의 영업이라고 믿으며 매일 발로 뛰고 있습니다.

3. 충청지점(신), 이렇게 일해요

① 수급회의 시작부터 주문마감 14시까지 주문 업무 집중 관리

매일 반복되는 업무처럼 보이지만 신선식품 영업은 매일 새로운 변수가 발생합니다. 수급회의부터 주문 마감까지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각 지역 대리점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② 현장에 답이 있다! 거래처 밀착 영업

주문 업무가 끝나면 다시 현장으로 향합니다. 담당별 하루 2곳 이상의 거래처를 꾸준히 방문하며 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은 현장 활동 하나하나가 경쟁력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영업 활동

신제품과 양념육, 포장육 등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위해 매주 현장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전략을 점검합니다. 한 주의 성과를 리뷰하고 개선점을 찾아 다음 활동 계획에 반영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갑니다.

4.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시식 행사로 직접 확인한 하림 신제품의 경쟁력”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고객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신제품이 매장 내 홍보 부족이나 진열 공간 문제로 고객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는 직접 고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이 보건증을 발급받고 마트 현장에서 직접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제품을 맛본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관심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하림 신제품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았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5. 충청지점(신) 생존 가이드 TOP4

① 휴대폰은 또 하나의 업무 파트너

→ 사업부 내 가장 많은 대리점을 관리하는 만큼 주문, 출고, 클레임 등 다양한 문의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언제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과 배터리 관리는 필수입니다.

② 긍정적인 마인드와 팀워크

→ 바쁜 주문 업무와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즐겁게 일하는 문화가 충청지점의 강점입니다.

③ 신뢰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소통

→ 영업의 시작과 끝은 신뢰입니다. 거래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칭찬 챌린지



조이복 사원 생산2팀(가)
➔ 김경호 사원 생산2팀(가)

김경호님은 맡은 일에 대한 깊은 책임감은 물론, 동료들의 어려움까지 적극적으로 돕는 따뜻한 분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주변 동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우리 조직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 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경호님, 고맙습니다!



한지은 사원 생산1팀(가)
➔ 김은화 사원 생산1팀(가)

조기 출근을 하는 날이면 본인도 피곤할 텐데 동료들을 살뜰히 챙겨주시고 라인 구분 없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도움을 주십니다. 특히 신입사원이 오면 누구보다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현장에서 누구와 가장 일하고 싶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단연 '김은화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 속에서 은화님은 저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공반에 은화님 같은 분이 계셔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이동원 사원 바이오1팀
➔ 나상수 사원 바이오1팀

바이오 1팀의 설비 관리를 책임지시는 나상수 반장님을 칭찬합니다! 반장님은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팀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앞장서시는 반장님의 숭선수범은 팀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합니다. 묵묵히 헌신하며 항상 많은 배움을 주시는 나상수 반장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새내기자 | 김지연 과장

칭찬 릴레이



김혜진 대리 영업기획팀
➔ 이소희 사원 회계팀

매달 매출 마감 기간이 되면 여가 지저기서 문의가 쏟아져 정신이 없곤 합니다. 하지만 소희 사원님은 언제나 친절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사소한 질문에도 매번 정성껏 도와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마감도 잘 부탁드리며, 하림의 '마감 요정' 소희님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이영광 과장 공무팀(역산)
➔ 정승훈 과장 생산2팀(역산)

생산2팀의 든든한 버팀목, 정승훈 과장님을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과장님은 언제나 남다른 책임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숭선수범하시며 팀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주십니다. 특히 선후배 간의 장벽 없는 소통을 주도하고 사소한 의견까지 귀담아들어 주시는 덕분에 저희 팀은 불협화음 하나 없이 언제나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합니다. 팀원들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주시는 따뜻한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과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매일이 든든합니다.



이정수 과장 사육기획팀
➔ 강승헌 사원 사육2팀

사육2팀 강승헌 사원은 깊은 책임감과 밝은 미소, 그리고 단단한 집중력으로 매사에 임하는 멋진 동료입니다. 승헌 사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사육사업부 전반을 꿰뚫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과 분석을 통해 미래의 방향성까지 제시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매번 어려운 과제와 마주하면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똑심 있게 중심을 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동료로서 정말 많은 자극과 배움을 얻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헤쳐나가는 승헌 사원의 앞날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새내기자 | 정진 사원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신입사원 맞이



<신입사원 맞이 샘플>

Jane: Hi Emily, welcome to the team! (A) How are you settling in so far?

Emily: Thanks, Jane. I'm still getting used to everything, but everyone's been very kind.

Jane: I'm glad to hear that. (B)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me anytime.

Emily: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Jane: This week, (C) I'll walk you through our main tools and workflows.

Emily: That would be very helpful. I especially want to understand the reporting process.

Jane: Sure, (C) we can review that together tomorrow afternoon.

Emily: Sounds good!

Jane: Also, you'll have a buddy from our team to support you during your first month.

Emily: That's great. I already feel less nervous.

Jane: You're doing well already. (D) We're happy to have you on board.

제인: 에밀리, 팀에 온 걸 환영해요! 요즘 적응은 어떠나요?

에밀리: 감사합니다. 아직 익숙해지는 중이지만, 모두가 정말 친절해요.

제인: 다행이네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에밀리: 정말 감사해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제인: 이번 주에는 우리 주요 업무 도구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에밀리: 좋아요. 전 특히 보고서 작성 과정을 알고 싶어요.

제인: 물론이죠. 그 부분은 내일 오후에 같이 검토해요.

에밀리: 좋아요!

제인: 또 첫 한 달 동안은 팀에서 멘토 한 분이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에밀리: 너무 좋네요. 벌써 긴장이 좀 풀려요.

제인: 이미 잘하고 있어요. 우리 팀에 오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신입사원 맞이 패턴>

(A) 적응 상황 묻기

- **How are you settling in so far? / How's your first week going?**

ex. How are you settling in so far?
(지금까지 적응은 잘 되어 가나요?)

ex. How's your first week going at the company?
(회사에서의 첫 주는 어떠신가요?)

(B) 도움 및 지원 제안하기

-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 [행동]. / Let me know if you need + [도움].**

ex.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me anytime.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ex. Let me know if you need any support with the system.
(시스템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C) 업무 및 프로세스 안내하기

- **I'll walk you through + [업무/시스템]. / We can review + [내용] together.**

ex. I'll walk you through our main tools and workflows.
(주요 업무 툴과 업무 프로세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 We can review the reporting process together tomorrow.
(내일 함께 보고 프로세스를 검토해봅시다.)

(D) 환영 및 격려하기

- **We're happy to have you on board. / You're doing great so far.**

ex. We're happy to have you on board.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ex. You're doing great so far.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ex. I'm sure you'll do an excellent job here.
(분명 여기서 훌륭하게 해낼 거예요.)

전화벨만 울려도 긴장된다면?

신입사원 전화 공포증 탈출하기



전화 걸기 전

**준비된 사람만이
원활하게 통화한다!**

- 용건 정리하기**
전달할 내용을 메모로 간단하게 정리
- 자료 및 필기도구 준비하기**
캘린더, 서류, 펜 등을 미리 준비
- 통화시간 확인하기**
출퇴근 직전, 식사시간(12~13시)은 피하기

전화 걸 때

**첫인사부터
깔끔하게!**

안녕하세요.
00팀 000입니다!

- 소속과 이름 먼저 밝히기**
“안녕하세요. 00팀 000입니다.”
- 통화 가능 여부 확인하기**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 용건은 간단명료하게**
결론 먼저, 핵심만 짚게!
- 마무리는 정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받을 때

**빠르게 받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네, 00팀
000입니다!

- 벨 3회 이내 받기**
늦게 받았을 땐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 소속과 이름 정확히 말하기**
기관명/부서명과 이름을 정확히
- 메모는 필수**
상대방 소속, 성명, 용건, 연락처 기록하기
- 중요 내용은 다시 확인하기**
날짜, 시간, 숫자는 꼭 복창!

담당자 부재 시

**대신 받아도
프로답게!**

메모 남겨
드릴까요?

- 담당자 부재 시 안내하기**
“죄송하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 전화 연결 전 안내하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담당자에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대신 받은 전화는 정확히 전달하기**
“네, 대신 받았습시다. 00팀 000입니다.”

전화는 업무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올바른 전화 예절을 실천하여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만들어 보세요.

눈으로 보는 하림

2026년 6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0601_부산 서원유통 방문

주요유통 파트너인 서원유통을 방문해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0602_충북 제천 에덴유통 방문

충북 제천 에덴유통을 찾아 유통 현장을 살펴보고 상생을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0611_한국수출입은행 감사패 전달식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0612_육군훈련소 류승민 소장 미팅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HCR투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급식 운영 현안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0623_농가 및 거래처 방문

충북 진천 토종닭 농장을 방문해 원료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0623_농가 및 거래처 방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삼전점과 잠실점을 방문해 매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060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정승교 부장



0610 한국여성소비자연합



0611 싱그린FS 베트남 바이어



0611 장성기 익산세무서장



0611

태국 'THAIFOODS GROUP(TFG)' 대표단



0617

GS수퍼



0617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방문



0626

전북일보 국장단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6월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싱그린FS베트남 바이어, 익산 세무서장,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전주중합사회복지관, GS수퍼, 전북일보 국장단, 일반인 등 3,720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HCR투어 신청 QR코드



이달의 Quiz

과거 궁궐에서 복날 관료들에게 더위를 이겨내라고 나누어 주었던 것은?

- ① 비단 부채
- ② 말린 인삼
- ③ 빙표(氷票, 얼음교환권)
- ④ 수박



정답 제출 방법

답장을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하림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참여 시, 번호와 선택한 이유,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932@harim.com

241호 퀴즈 당첨자

임*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139

배*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0길

최*진 전북 군산시 지곡로52

박*현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

하림 삼계탕

24시간 내 갓 잡은 닭으로 만든 삼계탕!
영하 35도 이하에서 급속냉동하여 갓 끓인 맛 그대로!
국내산 7가지 건강한 재료를 더해 건강하게!

